"천상·인간서 자유로운 왕 될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㊵ 수기

〈원문〉 "그대는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이 공덕으로 한량없는 아승지겁 동안에 마땅히 천상과 인간에서 자유로운 왕이 될 것이다. 태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항상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량없는 아승지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2만 아승지겁 동안을 하여 마땅히 보광 여래·응공·정변지가 될 것이다. 그 부처님 나라에는 나쁜 과보를 받는 일이 없으며, 늙고, 병들고, 쇠하여 귀찮은 뜻에 맞지 않는 괴로움이 없다. 또한 좋지 못한 악업의 이름마저 없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몸과 힘과 수명과 다섯 가지 욕락이 모두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즐겁기만 하여 타화자재천의 천상세계보다 나을 것이다. 그 세계의 중생들은 순수하고 한결같은 대승에서 온갖 선근을 닦아 익힌 이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니라. 승만 부인이 수기(授記)를 받았을 때 한량없는 중생들과 천상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세존께서는 모두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다.

〈강설〉 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수기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다. 수기(授記)란 범어 비야카라나(毘耶佉梨那 : Vyakarana)를 번역한 말로 불법을 수행하는 이에게 부처님이 미래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미리 보장해 주는 말, 곧 예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구별(區別)·분석(分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교설에 대한 분석, 문답 방식으로 전하는 교리해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나중에는 뜻이 바뀌어 미래세에 성불한 뒤 얻을 명호를 예언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기설은 〈아함경〉에서도 설해져 있고 또 〈수기경(授記經)〉이라 하여 9부경 혹은 12부경으로 분류한 그 가운데의 한 부류를 〈수기경〉이라 하였다. 그러나 성불에 관한 수기는 대승경전에 보편적으로 설해져 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장면이 여러 품에 걸쳐서 나온다. 28품 가운데 '수기품', '오백제자수기품', '수학무학수기품'의 세 품이 모두 수기를 주는 내용이다. 이 밖에 〈무량수경〉에도 법장비구가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로부터 수기를 받고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수기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인차별수기(人差別授記)와 때에 따라 달라지는 시차별수기(時差別授記)가 있다. 또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주는 현전수기(現前授記)와 면전에 없는 사람에게 주는 불현전수기(不現前授記)로 구분하기도 한다. 아무튼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교에 있어서 성불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지극한 일이다. 병을 앓는 환자에게 병이 나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정적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희망이 되는 것처럼 성불을 보장받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아승지는 대수(代數)로 쓰이는 용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화엄경〉 '아승지품'에 124개의 대수 용어가 설해져 있다. 겁(劫)이란 말은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찰나(刹那)와 상대되는 말이다.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 아승지겁을 인간과 천상의 왕이 되었다가 2만 아승지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여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내용이다.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로 씨앗 하나가 수많은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그 양(量)이 점점 증가하여 무한대로 이어지듯이 작은 인연에서 시작하여 성불을 기약하는 큰 인연이 오게 되는 미묘한 이치를 설하고 있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욕계의 가장 높은 천상세계이다. 변화가 자재하여 온갖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는 천상이라 한다. 승만 부인이 성불할 때 보광여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 중생들과 천상인에게도 왕생을 보장해 주는 수기를 주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성불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㊸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무명 제거하려면…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알아야 할 것 중에 그 첫째는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무명을 제거할 수 없다. 그리고 왜 내가 중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한다. 또한 부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째는 '분별'이다. 내 마음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알려고 하는 한 생각을 없애야 한다.

한 생각, 즉 일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끝없는 구원겁(久遠劫) 이전부터 윤회의 삶 속에서 중생의 삶으로 무명심을 계속 키워왔고, 그 무명심으로 인한 생명체의 활동에서 훈습이 되어 왔고, 그 훈습으로 인하여 또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우리 마음 바탕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나의 본성의 참 부처님, '참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한 생각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찾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한 생각이 그대로 멈추었을 때 그 자리는 바로 영겁 동안에 쌓아온 무명이 모두 제거된 진여본성의 반야지혜((般若智慧)가 그대로 온 우주법궤(宇宙法軌)를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중생이다'라는 생각도, 들면 들수록, 알면 알수록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결론

우리의 진실한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진여본성 뿐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여기에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지할 곳(依所)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 말며 법(法)을 주(洲)로 하며 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주(洲)'는 '강변', 또는 '뭍'을 말한다. 즉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뭍은 언제나 그곳에 있듯이 변함없이 영원한 삶의 발판이 주(洲)인 것이다.

〈법구경〉 380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일러 주셨다.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主)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依所)이다. 그런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마를 길들이듯이."

또 〈법구경〉 23권에서 이르기를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흐르지 않는 주(洲)와 같이 자기 자신의 참 본성인 진여본성과 영원한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스스로의 참 마음이 곧 부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스스로의 참 마음이 부처요, 진리요,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우주의 근본주체임을 믿는다. 그래서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중생의 마음을 걷어내고 진여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정화시켜 본래 모습을 발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구름에 의해 가려진 태양일지라도 그 빛은 항상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비록 무명에 가려져 중생심이 되었지만 무량한 공덕을 갖춘 진여본성인 자성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반야의 빛을 놓으며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괴로움을 없애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의 마음을 바로 깨쳐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본래부터 구함 없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본래 부처임을 믿고 자성불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㊵ 불의 비유와 밧차곳따의 경 1

스스로는 존재 방법 없어

"그러므로 여래는 모든 환상, 모든 혼란, 모든 '나[我]'를 만드는 것, 모든 '나[我]'의 것을 만드는 것, 자만의 잠재의식을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버려 버리고, 놓아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고 '나[無]'는 말합니다."

단편적인 태어남의 뿌리에서 생겨난 견해는, 좋고 나쁜 대상과 편안하고 불편한 대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견해의 본질을 보게 되면 아지랑이 같아 출발한 곳이 없다. 순간적으로 결합된 인연과 조건이 잠깐 모여 나타난 신기루 같은 모습들인데, 뭇 삶은 견해의 옳고 그름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 견해라는 것은 환상에 의한 이미지의 표현들이지 사실적인 모습으로 보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데 왜 속고 있는 것인가? 속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고(思考)로는 모양을 가지고 모양이 아닌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였지만, 마지막에 남은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그는 그 생각을 하는 주체인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수행자들도 여기에 봉착하게 되면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관념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결론을 내게 된다. 감각 기능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그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我]'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거창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항상 본질에 대한 진실보다는 개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사실처럼 확신하여 주장하기 때문이다.

의식 속에 '텅 빈, 만들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그 주체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나[我]'와 '나[無]'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환상의 존재로서 존재 아닌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라 하여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본질을 안다는 것은 '나[無]가 아닌 것'과 '나[無]인 것'이 분명해져야만 모든 환상에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버리고, 놓아 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럼 '나[無]'를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참으로 '나[我]'를 인식하지 않는 순간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만, 밖으로 들리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 아닌 답을 찾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삶에서 항상 누군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움직이는 첫 생각을 바르게 보라. 그것이 누구의 움직임인가를.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듣고 알려고 하는 첫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나[無]'를 찾아 헤매던 것이 그림자가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꼴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림자와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고, 부수고, 버리고, 주워가며 어느 때는 '나'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너'가 되었다가를 반복하였다.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마음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웃고 울고 하였던 세월이 모두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는 말이 들릴 때, 어디에도 흔적 없는 '나[無]'를 대면하게 된다.

그러고 나니 환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것도 없다. 일체는 저절로 부수어지고,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버려지고, 저절로 놓게 된다. 다시 더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어 견해를 그려야 하는 물감이 없으니, 그림을 의뢰하는 오온이 주연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주연 역할이 없어지면, 혼란에서 벗어나 사실적인 것이 확연하므로, 모든 '나[我]'를 만드는 것, 모든 '나[我]'의 것을 만드는 것, 자만의 잠재의식이 텅 비어 사라져버린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금강경한문+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